

##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이 총 열\*

### I. 서론

최근 들어 아세안내에서 역내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아세안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이 아세안 정상들의 선언과 같이 2015년까지 이루어진다면, 이후 아세안 역내의 경제주체들은 역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의 시한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아세안 각국의 정부와 금융 감독기관들은 각국의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과 상호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내에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각국의 금융서비스 수요자(가계 및 기업)들과 금융서비스 공급자(금융기관)들이 서로 자유롭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세안 역내 특정국의 경제주체들이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아세안내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아세안 역내의 금융기관들은 역내 금융감독기관이나 정부가 설정한 일정 조건을

---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cllee@korea.ac.kr

갖출 경우, 역내 어느 국가에서나 손쉽게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sup>1)</sup> 물론 실제로 합의된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특정 지역에 진출하지 않거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이들 기관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도적인 제약과는 무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개념과 진행 과정 및 향후 방향 등을 조사하고, 그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특정 지역 내 국가들이 금융시장을 통합하려 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아세안내에서 금융시장 통합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후, 그 성공 가능성을 현 아세안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아세안 내의 금융시장과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최근의 금융시장 통합 과정을 조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안이 추진할 금융시장 통합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세안 내에서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준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아세안내에서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시장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세안국가들 사이의 경제수준 및 금융시장의 발전정도나 인프라 설비 정도가 너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통합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아세안중 통계자료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 일

1)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은 통화통합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위에서 설명한 의미의 금융시장 통합은 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의 Second Council Directive 89/646/EEC에 따라 유럽연합의 한 국가에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은행은 유럽연합내 모든 국가에서 은행지점을 설치하여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적어도 은행들이 지점을 통하여 각국에 진출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고, 각종 규제가 사라져 각국의 경제주체들은 자신이 원하면 역내 어느 은행과도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럽의 통화통합은 1999년 1월 유럽연합의 10개국이 공동통화를 사용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부 국가들 대상으로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도였다. 한편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과 연결하여 동아시아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는 아세안으로 금융시장 통합단위를 국한하지 말고,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로 통합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연구 역시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sup>2)</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들의 통합과정과 가능성을 살펴본 거의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최근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 현황 및 최근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제3장은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과 아세안 금융통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방법론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제4장은 위에서 설정한 정의와 방법론에 근거하여 최근 아세안의 경제 및 정치적 환경,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추진 계기 및 원인 등을 살펴보고, 단기적인 통합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 II.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개관<sup>3)</sup>

아세안 내에서 금융시장 통합은 역내 금융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따르면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내에서 자유롭게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동

2) 아세안 +3의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연구로는 Soyoung Kim and Jong-Wha Lee (2008), Pasadilla(2008), Fujiki and Terada-Hagiwara(2007), Yung Chul Park and Charles Wyplosz(2008), Chow, Kriz, Mariano and Augustine(2005), Lee, Huh, and Park(2011), Hong Bum Jang(2011) 등을 참조하시오.

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논의 및 발전과정은 부록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하는 것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요건이 된다. 따라서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내의 경제주체들이 아세안 내에서 제공되는 특정 금융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아세안 내의 경제주체들이 각종 금융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금융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금융 감독기관이 인허가를 한 이후에나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혹은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른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해당국의 금융 감독기관들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는 금융시장 개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시장 통합이 아세안 역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려면 아세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들이 상호 합의하고 인정하는 일정한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기반이 이루어지면 아세안내 각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이윤동기에 따라 자유롭게 역내 국가에 진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게 된다. 결국 금융시장 통합을 통한 경제성장을 제고는 아세안 각국이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

즉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성공은 단기적으로 아세안 내에서 역내 금융시장 통합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제도 통합에 따라 각종 역내 금융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과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통합에 의해 실제로 역내 투자나 소비, 무역 등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sup>4)</sup>

4) 예를 들어, 역내 A국의 금융기관이 B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은 매우 최근에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아세안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5개국의 외교장관들이 지역안보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7년 8월 ASEAN 창립선언 혹은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결성된 것이다.<sup>5)</sup> 때문에 아세안은 창립 당시 정치 및 안보 공동체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지역안보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면서 아세안은 정치안보 공동체보다는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sup>6)</sup> 즉 아세안 각국들은 정치안보적인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됨에 따라,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과 효율성 개선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상호 경제협력과 통합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 12월 아세안 정상들이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을 채택하고, 아세안 역내에서 ‘재화, 용역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보다 자유로운 자본이동(a free flow of

---

허용이 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B국의 경제주체들이 A국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즉 A국 금융기관이 B국의 경제 및 금융현황을 조사하고, 지점을 개설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수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실제 금융시장이 통합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 5) 이후 1984년 1월 브루나이가 가입하였고, 1995년 7월 베트남이 가입하였으며, 1997년 7월과 1999년 4월 라오스와 미얀마가 가입하였고, 1994년 4월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 총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아세안 헌장에 기록된 아세안설립목적은 크게 (1)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 발전 도모, (2) 지역안보 및 평화유지를 위한 협력 증진, (3) 동남아시아 지역 내 제반문제의 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 6)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로서의 첫발은 1976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당시 아세안 5개국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무역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제1차 발리선언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1차 발리선언이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난 것은 1992년 1월 부르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역내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줄이는 협의를 1992년 1월 28일 싱가포르 경제장관회의에서 도출하면서 시작되었다(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1992년 1월 28일).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s, and a freer flow of capital by 2020)'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논의는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sup>7)</sup>

한편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 역시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구축을 선언하기 이전에도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왔다. 예를 들어, 아세안 중앙은행들은 1977년 8월 이미 상호간 통화스왑협정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하였다.<sup>8)</sup>

그러나 1997년~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아세안 각국들은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아세안 각국들의 금융시장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통합되거나 연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세안의 금융 감독기구들은 상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감독기관들 간의 협력 형태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아세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들이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정보교환 및 정책의견 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즉, 아세안 국가들은 매년 재무장관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 및 부총재 회의, 실무진 회의 등을 개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내 금융시장 및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게 되었다.<sup>9)</sup>

7) 아세안 비전 2020은 1997년 12월 14-16일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2차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8) 당시 통화스왑협정은 아세안 5개국간 이루어졌고, 양해각서는 통화스왑의 목적, 스왑형태, 자금 지원 기간과 규모 등이 제시되어 있다(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ASEAN Swap Arrangements, Kuala Lumpur, 5 August 1977).

9) 이밖에 추가적으로 아세안+3의 협의체하에서 급격한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통화스왑협정의 형태로 1999년 시작된 치앙마이이니

<표 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주요 과정

	이름	기간	활동
1	아세안 금융감독기관들의 워킹그룹	1995년 이후 - 현재	금융서비스 자유화워킹그룹, 자본시장 발전 워킹그룹, 자본계정 자유화 워킹그룹, 지급결제시스템 워킹그룹 등으로 구성
2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로드맵	2003년 8월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기초 로드맵
3	제2차 발리선언	2003년 10월	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선언
4	아세안 자본시장 포럼	2004년 이후 - 현재	2009년 4월 “아세안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실행 방안”을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진받음
5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07년 11월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비전과 향후 발전 방향 및 주요 실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
6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연구	2011년 4월	아세안 중앙은행 주체로 추진되어, 아세안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2000년대 들어,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폭제는 아세안 정상들이 2003년 10월 제9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제2차 발리선언(Bali concord II)이었다. 발리선언에서 아세안 정상들이 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아세안 각 국가들의 정부는 각 부문별로 ‘아세안 비전 2020’이 실행

서티브가 있다. 이는 금융시장 통합 보다는 아세안+3 국가들 사이에서 급격한 외화 유동성 부족현상 발생시 각국이 보유하는 외화유동성을 제공하여 환율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협력 형태로 금융시장 통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금융감독기관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는 당초 역내 양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자간통화스왑형태로 발전하였고, 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2011년에는 연구기관으로 ASEAN+3 Macroeconomic and Research Office (AMRO)이 개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시작하였고, 이는 아세안 금융 부문에서 각국 금융시장 개방과 통합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더불어,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제12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를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국 및 각 부문별 준비는 더욱더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sup>10)</sup>

한편, 2003년 8월 필리핀 마카티에서 개최된 제7차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은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로드맵(Road map for Integration of ASEAN in Finance, RIA-Fin)을 제시하였고,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였다. 아세안은 금융시장 통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통합 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국 금융감독기관들로 구성된 분과(working group)를 금융서비스자유화, 자본시장 발전 및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분야로 결성하고, 금융시장통합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시장개방안 협의에 들어가게 되었다.<sup>11)</sup>

이어 아세안은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재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관련 주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자본시장 통합 실행 계획(Implementation Plan)이 발표되고, 2011년 4월에는 은행서비스 시장 개방 계획안이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금융시장 통합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되었다.

---

10) 이 선언문은 “Cebu Declaration on the Accel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 Community by 2015.”으로 2007년 1월 13일 발표되었다.

11) 2010년 아세안 금융감독기관들은 지급결제시스템 분과를 하나 더 추가하여 2011년 6월 현재 총 4개의 분과가 구성되어 있다.



### Ⅲ. 금융시장 통합의 추진 동력과 성공 조건

#### 1. 금융통합의 장기적인 추진 동력

특정 지역내 국가들이 역내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내 공통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역내 금융시장 통합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기초적인 경제이론을 통하여 제시되는 사항으로 이는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어 왔으며, 실제로 유럽 금융시장 통합의 합리적인 이유로 제시되었다.<sup>12)</sup>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 
- 12) 유럽연합내에서 금융시장 통합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연구로는 London Economics(2002)가 있다. 이들은 투자와 성장률, 이자율 등에 대한 계량경제방정식을 설정하고, 유럽연합이 금융시장을 통합할 경우, 이자율하락 효과가 투자와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 13) 금융시장 통합이 경제성장과 연결된다는 가설은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검정의 대상이었다. 이는 크게 금융시장 통합이 금융시장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가와 금융시장 발전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설로 구분되어 검정되었다. 첫째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금융시장 개방은 일부 국가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Bekaert et al.(2005, 2009), Hammel(2006), Mukerji(2009), Prasad et al.(2007)의 분석에서는 금융자유화와 개방화시 금융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Kraay (1998)와 Arteta et al.(2003)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제시된다. Goldsmith(1969), McKinnon(1973), Shaw(1973)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Greenwood and Jovanovic (1990), Bencivenga and Smith(1991) 등으로 이어져 대체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경제발전을 유도하거나 적어도 상호간에 인과성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Hermes and Lensink(2003), Alfaro et al.(2004), Carkovic and Levine(2005) 등은 금융시장 발전이 해외직접투자 혹은 전반적인 투자증가에 기여한다고 통계자료분석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개방이 개도국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실제 경제성장에 저해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Aghion and Banerjee(2005)와 Mishkin(2006)는 개도국에서 금융위기가 보다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금융시장 개방기간에 집중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실제로 금융시장통합이나 개방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Kose, Prasad and Taylor(2009)와 같이 금융시장 개방과 통합이 성공

첫째, 금융시장 통합은 역내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 금융시장이 통합되면 각국이 직면하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결국 실물 투자 증가로 연결된다. 한편, 이러한 효과는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sup>14)</sup> 저소득 국가들은 대규모의 인프라투자가 매우 시급한데, 현실적으로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의 규모나 역량으로는 이러한 투자를 취급하게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역내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 국가의 금융서비스 수요자들은 이러한 규모나 역량을 갖고 있는 해외금융기관을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보다 발전된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효율성 개선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시장의 통합은 금융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여 금융기관 및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각 기업들은 금융시장통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특히 이들 국가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본국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저개발 국가의 금융서비스 소비자들은 기존에 자국의 금융기관이 능력부족으로 제공할 수 없었던 각종 금융서비스를 신규 선진금융기관의 진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축률이 높아서 해외에 저축하는 역내 국가들은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보다 많은 역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역내 국가들은 역내 자금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산업 발전을 통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금

하는 조건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14) 이는 특히 아세안의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에 해당된다.

용서비스도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통합은 일부 국가에게 금융산업의 발전 및 시장개척 및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효과는 산업 구조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고,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주요 성장의 축으로 삼거나 삼으려는 국가들에게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sup>15)</sup>

넷째, 금융시장 통합은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전반적으로 경제공동체는 무역확대 및 서비스 거래 확대 등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데 금융 통합은 서비스 거래 확대 형태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 한편, 경제공동체는 각국의 유대관계증대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에 대응하거나 안보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므로 대외적으로 위협을 받는 소규모 국가들은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요인을 갖게 된다.

## 2. 금융시장 통합의 조정비용과 결정요인

역내 국가들이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할 경우, 각 국가들은 금융시장 통합 조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때 이들 국가들의 통합추진 가능성은 이들의 통합조정비용의 크기와 이들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인 해결 능력 등에 의존한다.

역내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역내 국가들은 각국의 금융관련 법 및 규제를 상호 비교하고, 이를 포괄할 최적시스템을 결정한 뒤, 해당 규제와 법 등을 개정하고, 업무 관련 각종 관습 등을 바꾸며, 적합한 국제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제적 및 비경제

15) 아세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국가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이를 매우 중요한 이점으로 간주한다.

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손실을 받는 특정 집단들이 반대할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은 이들 역내 국가들이 서로 다른 구조나 제도를 갖고 있을 경우, 그 규모가 작아질 것이고, 서로 유사한 구조나 제도를 가질 경우 그 규모가 커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조정비용의 크기는 현재 이들 각국들의 통합준비 상태에도 의존할 것이다. 한편, 정치적인 조정비용과 해결 용이성은 각국 정치제도나 주변국과의 정치 및 경제적인 관계 등에 의존한다. 이들 요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각국 경제구조의 유사성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혹은 금융시장 통합을 하려는 경제의 발전 정도나 산업구조 등이 유사한 경우, 통합시 그 충격이 크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상호간 금융시장통합의 이점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반면, 비용은 적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역내 각국 실물경제의 상호 연계성이다. 이는 통합하는 경제가 이미 무역이나 투자 등을 통하여 상호 연계성이 높을 경우, 이미 상당 수준 경제활동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때, 금융시장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리고 비용은 적게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두 국가가 상호간 무역이나 실물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대체로 두 국가의 기업들이 여러 경제활동을 양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시장이 통합되면 이들 기업들은 같은 금융서비스와 금융기관을 양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역내 각국의 정치적인 해결능력과 해결방식이다. 금융시장통합은 장기적인 이득을 제공하지만 단기적으로 특정 그룹이나 기관들의 반대를 수반한다. 이때 이를 얼마나 쉽게 극복하는지는 각국

의 정치적인 제도나 지도자 및 지도계층의 의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역외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 및 경제적인 환경 변화이다. 역내 국가들이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내 국가들이 결합하여 역외국가들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특히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주변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역외 국가들의 움직임이 역내 각국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금융시장 통합추진을 위한 각국의 준비 정도이다. 이는 통합을 추진하는 국가가 현재 어느 정도의 통합을 위한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서비스 통합 인력의 공급이나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경우, 조정비용은 작아지게 된다.

여섯째, 해당국가의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및 금융제도의 발전 정도이다. 해당국가의 발전 정도 및 제도의 발전 정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들 국가들은 통합의 비용을 적게 부담할 것이다. 이는 1인당 소득의 차이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 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장단기 성공 가능성과 분석 방법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의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면 역내 국가들은 장기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통합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역내 국가들은 이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금융통합을 추진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 아세안 각국들이 금융시장 통합의 장기적인 이득을 잘 인식하고, 단기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예정대로 통합을 이룬다.<sup>16)</sup>

가설 2: 아세안 각국들이 금융시장 통합의 장기적인 이득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느껴서 예정대로 금융시장 통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

가설 3: 아세안 각국들은 금융시장 통합의 장기적인 이득을 잘 인식하기 통합을 추진하나 단기적으로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느껴, 실제 통합이 예정보다 늦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아세안이 이들 세가지 가설 중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다음의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각종 계량지표들을 사용하고, 이 계량지표의 분포를 이용하여 금융시장 통합 조건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하고, 이들 지표들이 임계치에 도달하였는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통합시 역내국이 얻는 이득과 단기적으로 각국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이것이 일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이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해당 국가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교 가능한 통계를 보유하고, 이들 가치 판단을 위한 임계치 설정을 위하여 많은 비교 대상이 제공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둘째, 이들 각국의 각종 기초자료와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통합가능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과 조정비용, 어려움 등을 나타내는 기초 지표와 제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판단하는

---

16) 이때 예정대로의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5년 아세안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보다는 비과학적이고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그러나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각 지표에 대한 명확한 임계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들내에서 금융시장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두 번째 방법론을 사용하되 가능한 한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제시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가 두 번째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아세안이 직면한 상황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 중 상당 국가들이 아직도 저개발 국가들로 관련 경제 통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찾기에선 원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수익률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또한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의 국가들은 고정환율제도 혹은 상당히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을 통한 외환시장간의 관계 분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 이러한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유럽연합에 불과하여 단 한차례의 경험에 의거하여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유럽연합이 금융시장 통합을 이루었던 과정이나 당시 환경이 현재 아세안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아세안 각국이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장기적인 이득을 살펴보고, 또한 각국이 부담하게 되는 조정비용 등을 분석하여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단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살펴본다.

## IV.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가능성 분석

### 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장기적 이득

#### (1) 금융시장 발전을 통한 투자 확대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은 역내 금융시장 규모 확대를 통한 투자 확대의 기회가 된다. 이 효과는 특히 아세안의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국가들에서 특히 외국인직접 투자 증가와 인프라시설 확충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표 2>와 같이 이들 저소득 국가들은 1인당 소득이 대체로 천 달러 미만인 가운데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현재 이들 국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들이 이들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적절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저소득 국가들은 금융시장 개방 혹은 통합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아세안 금융시장개방은 아세안 개도국에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된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줄 장기적인 자본이 필요하다. 각종 도로와 항만, 전기, 통신, 수도 등에 인프라가 필요하나, 이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자본을 공급할 금융기관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선진국의 자본과 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이들 인프라 공급할 수단을 찾게 된다.

#### (2) 금융서비스 개선



아세안 금융시장 개방은 아세안 내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표 3>은 아세안 각국 국민들의 금융시장 접근도를 나타낸다. 이 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아세안의 일부 국가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성인인구 1000명당 은행계좌가 96건밖에 되지 않아서 성인인구의 약 90% 이상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ATM 수가 10만당 4.19개에 불과하여 은행서비스 활용이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 은행시장 개방으로 역내 금융기관이 새롭게 진출한다면 국민들의 은행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저축자금 부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국가에게 은행서비스의 제공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sup>17)</sup>

한편 아세안의 금융서비스 개선은 이 지역 잉여자본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결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현재 전반적으로 많은 저축을 통하여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금이 결국 역외로 이전되고, 이중 일부만이 다시 역내로 투자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의 경상수지/GDP비율은 2000년~2004년 및 2005년~2009년 각각 6.3%와 7.4%를 기록하였다.<sup>18)</sup> 이때 이들 아세안 국가들이 주로 투자한 국가들은 아세안 역내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집중되었으며 그중 일부만이 다시 아세안국가로 재투자되었고 나머지 상당 금액은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는 아세안 각국들의 역내 포트폴리오 투자

17) 2010년 말 현재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제도화된 증권시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라오스는 2010년 말 개장하여 소수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때 금융시장 통합과정에서 이들 국가에 독자적인 증권 시장이 개설될 경우 새로운 저축방법 및 자본조달 방법이 제공되게 된다.

18) 아세안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환율안정을 추진하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환보유액을 늘렸고, 해외 자본 투자를 증대시켰다.

및 이들 중 아세안 역내의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의 투자 금액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로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2009년에는 2007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한편 2009년 기준으로 아세안의 해외투자 중 아세안 내부로의 투자는 현재 10% 미만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90% 이상은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미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은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해외포트폴리오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세안 역내로의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의 전체 포트폴리오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대체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들 자본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투자자들이 아세안 내의 금융기관보다는 선진국의 금융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는 역내 이들 국가의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없거나 그 수가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아세안 역내에 세계적인 규모 및 수준의 금융기관이 존재하거나 세계적인 수준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굳이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들을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sup>19)</sup>

19) 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역내 글로벌 수준의 금융기관이 존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역내 잉여 자산을 역내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즉 수백억 달러가 아세안에서 유럽과 미국을 거쳐 다시 아세안으로 역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액의 수수료가 이들 기관에 귀속된다. 둘째, 대부분의 자금을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역내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현재 전반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본의 해외유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자금이 직접 역내에서 사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유발할 수 있다. 미래 금융시장의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산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표 2> 아세안의 주요 경제 지표

국가	국토면적	인구	인구밀도	연평균 경제성장률 (2010-2010)	국내총생산 (경상)	1인당 국내총생산(경상)	
	km <sup>2</sup>	천명	km <sup>2</sup> 당 인구	%	미 백만달러	미 달러	PPP기준 달러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브루나이	5,765	406.2	70	2.1	14,146.7	34,827.0	49,266.8
캄보디아	181,035	14,957.8	83	2.1	10,368.2	693.2	1,802.3
인도네시아	1,860,360	231,369.5	124	1.2	546,527.0	2,362.1	4,174.9
라오스	236,800	5,922.1	25	2.8	5,579.2	942.1	2,431.3
말레이시아	330,252	28,306.7	86	2.1	193,107.7	6,822.1	13,593.8
미얀마	676,577	59,534.3	88	1.8	24,972.8	419.5	1,093.4
필리핀	300,000	92,226.6	307	2.0	161,357.6	1,749.6	3,525.1
싱가포르	710	4,987.6	7,022	3.1	182,701.7	36,631.2	49,765.8
태국	513,120	66,903.0	130	0.6	264,322.8	3,950.8	8,072.2
베트남	331,051	86,024.6	260	1.2	96,317.1	1,104.2	3,067.9
아세안	4,435,670	590,638.3	133	1.4	1,499,400.8	2,533.5	4,829.3

출처: ADB. 2010. *Key Indicators 2010*. Manila  
 . 2010.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

<표 3> 아세안 각국의 금융기관 접근도

	예금		은행지점수 (성인인구 100,000 명당)	ATM수 (성인인구 100,000 명당)
	계좌수(성인인구 1000명당)	금액 (% GDP)		
캄보디아	95.8	34.68	3.92	4.19
라오스	-	25.53	1.64	3.49
인도네시아	504.7	36.95	7.74	14.44
말레이시아	2,063.3	105.45	11.44	59.99
필리핀	499.1	48.61	11.81	14.25
싱가포르	2,236.3	280.88	10.54	49.83
태국	1,448.8	79.58	11.04	71.32
베트남	-	0.11	3.21	-
선진유럽국가	2,022.0	-	32.0	94.0
미국	2,021.9	27.3	36.33	175.7
사하라이남국가	163.0	-	3.0	5.0

주: 2009년말 현재  
 출처: World Bank. 2010. *Financial Access 2010: The State of Financial Inclusion  
 Through the Crisis*. Washington. World Bank (2010)

<표 4> 아세안의 교역규모와 경상수지 (GDP대비 %)

	(수출+수입)/GDP(%)					경상수지/GDP(%)				
	2000-2004	2005-2009	2007	2008	2009	2000-2004	2005-2009	2007	2008	2009
브루나이	85.8	84.6	79.8	92.0	89.3	47.2	53.2	50.9	59.1	46.7
캄보디아	98.3	105.5	109.5	99.5	93.6	-2.4	-3.7	-2.5	-6.2	-5.2
인도네시아	48.6	46.0	43.6	52.1	39.6	3.4	1.5	2.4	0.0	2.0
라오스	45.9	48.9	47.0	47.0	43.2	-12.7	-16.2	-15.9	-18.5	-17.6
말레이시아	178.7	171.5	172.8	160.4	154.4	9.8	16.3	15.9	17.5	16.5
미얀마	68.5	49.5	51.1	43.3	34.8	-0.3	1.5	0.6	-2.2	-1.6
필리핀	97.2	74.5	75.3	66.7	52.3	-0.7	3.8	4.9	2.2	5.3
싱가포르	289.3	327.7	318.6	341.0	283.7	15.3	21.7	26.7	18.5	17.8
태국	109.9	122.4	118.9	129.1	108.7	4.2	2.3	6.3	0.6	7.7
베트남	108.0	144.3	156.6	158.8	136.4	-0.9	-6.2	-9.8	-11.9	-8.0
아세안	113.0	117.5	117.3	119.0	103.6	6.3	7.4	8.0	5.9	6.4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Database*, IMF Websit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Website

<표 5>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CPI 상승률				
	2000-2004	2005-2009	2007	2008	2009	2000-2004	2005-2009	2007	2008	2009
브루나이	2.6	2.1	0.2	-1.9	-0.5	0.1	0.1	1.0	2.1	1.1
캄보디아	8.4	9.4	10.2	6.7	-2.0	1.6	2.9	5.9	19.7	-0.7
인도네시아	4.6	4.7	6.3	6.0	4.5	8.9	9.2	6.4	9.8	4.8
라오스	6.2	6.3	7.8	7.8	7.6	13.5	10.3	4.5	7.5	0.1
말레이시아	5.5	4.8	6.5	4.7	-1.7	1.4	1.8	2.0	5.4	0.6
미얀마	12.9	12.9	12.0	10.2	10.4	29.8	25.7	20.9	17.9	1.5
필리핀	4.4	4.5	7.1	3.7	1.1	4.6	5.4	2.8	9.3	3.2
싱가포르	8.8	8.5	8.5	1.8	-1.3	2.1	1.7	2.1	6.6	0.6
태국	5.1	5.1	4.9	2.5	-2.3	1.7	2.3	2.3	5.5	-0.9
베트남	7.2	7.5	8.5	6.3	5.3	4.6	6.1	8.3	23.1	5.9
아세안	6.6	6.6	7.2	4.8	2.1	6.8	6.5	5.6	10.7	1.6

출처: ADB. 2010. *Key Indicators 2010*. Manila  
 \_\_\_\_\_. 2010.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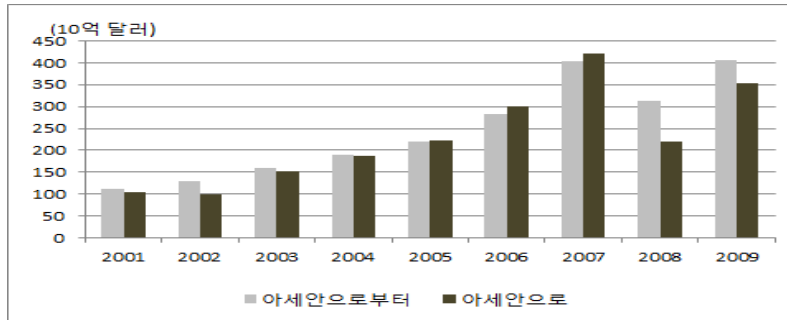
### (3) 아세안의 금융산업 발전

아세안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금융산업을 확대 및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 진출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3>과 같이 아세안 국가중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이미 금융자산 축적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고, 경제발전의 주요 축으로 금융산업의 육성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역내에서 자국의 금융산업을 확대하려면 주변 국가의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세안 주요 고소득국가들은 금융자산을 이미 상당 수준 축적하고 있는 반면, 이들 국가들의 개별 금융기관의 규모는 세계 주요국의 금융기관에 비교하여 볼 때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아세안 각국 은행들의 평균 자산규모로 전체 평균 값이 48억 달러에 불과하다. The Banker지가 매년 세계 주요 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조사하여 그 순위를 매긴 결과를 보면, 세계 순위 500번째 은행의 자산이 148억 달러로 나타나, 아세안 은행들의 평균 자산 규모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은행들의 평균규모가 140억 달러 내외이고, 태국 은행의 평균 규모가 약 100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은행의 일부만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 6>과 같이 영국의 Brand Finance가 선정한 세계 500대 은행에서 단지 24개의 아세안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100대 은행에는 단 한 개의 아세안 은행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은행들은 아직까지 규모가 작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 진출한 아세안 은행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시장 통합은 이들 금융기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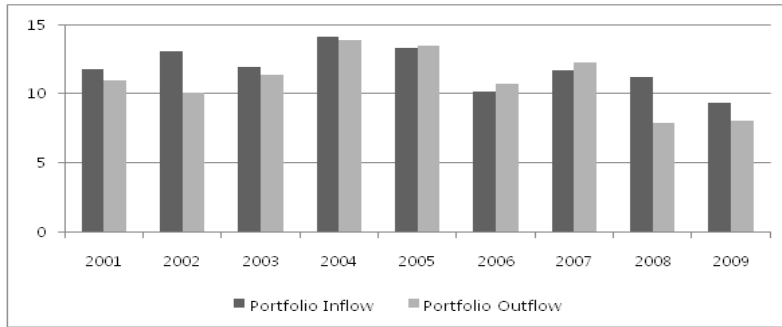
<그림 1> 아세안 국가들의 전체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금액



출처: IMF, *Portfolio Investment: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 2010.

<표 7>은 아세안 고소득 국가 5개국의 자산규모 3위 은행들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진출 현황과 주요 글로벌은행의 진출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아세안 은행 중 아세안 10개국에 모두 진출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SBC, Standard Chartered 및 Citibank에 비하여 아세안에 진출한 국가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들에 가장 많이 진출한 Standard Chartered 는 7개국에 현지법인을 갖고 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등 3개국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현지법인을 갖고 있는 은행은 싱가포르의 UOB로 6개 국가에 지점을 갖고, 1개 국가에 현지법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세안 역내 시장 통합은 이들 아세안 금융기관들이 타국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림 2> 아세안 국가들의 역내 해외포트폴리오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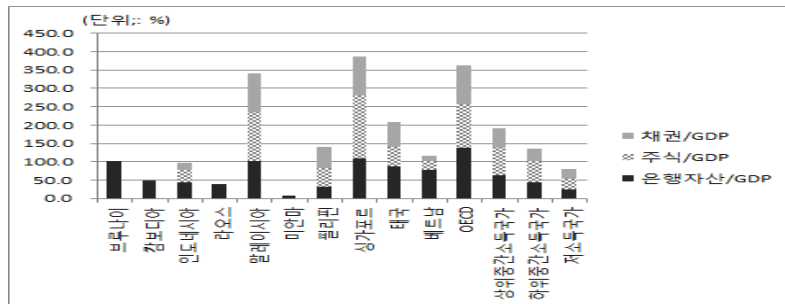


주: 아세안내 타국의 포트폴리오투자/전체해외포트폴리오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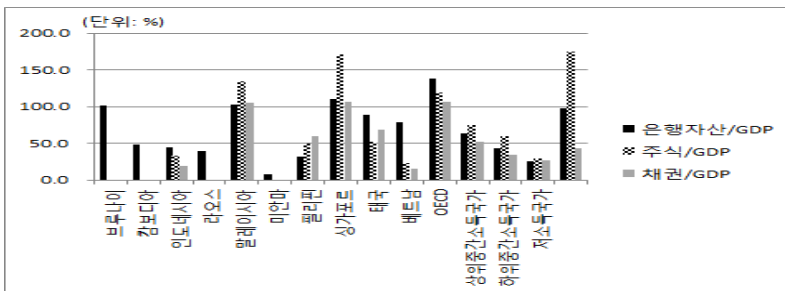
출처: IMF, *Portfolio Investment: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 2010.

<그림 3> 아세안 국가의 금융 자산과 구성

(a) 아세안 각국의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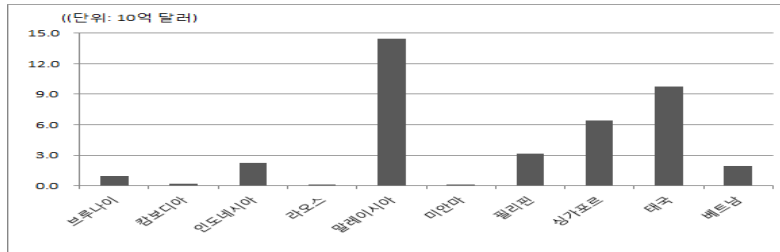


(b) 아세안 각국의 개별 금융 자산



출처: ASEAN 각국 중앙은행 웹사이트

<그림 4> 아세안 국가 은행들의 평균 규모



출처: ASEAN 각국 중앙은행 웹사이트

<표 6> 글로벌 500대 브랜드의 아세안 금융기관 현황

국가	은행수	은행 이름
인도네시아	5	Mandiri, BRI, BCA, Bank Danamon, CIMB Niaga
말레이시아	8	Maybank, CIMB, Public Bank, RHB, Am Bank, Hong Leong Bank, Hong Leong Group, EON Bank
필리핀	3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Banco De Oro Unibank, Metrobank
싱가포르	3	DBS, United Overseas Bank, OCBC Bank
태국	5	Bangkok Bank, SCB, Kasikorn, Bank of Ayudhya, Krung Thai Bank

출처: Brand Finance, available at: [http://www.brandirectory.com/league\\_tables](http://www.brandirectory.com/league_tables)

## 2.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조정 비용

### (1) 아세안의 다양한 경제구조

아세안 각국들은 매우 다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표 2>와 <표 8> 및 <표 9>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규모나 발전 수준, 경제 구조 및 산업구조에서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표 2>과 같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2009년 기준으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의



명목 GDP는 5,465억 달러로 G20 국가에 속해 있고, 뒤를 이은 태국은 명목 GDP가 2,64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아세안 국가 중 경제규모가 가장 작은 라오스의 명목 GDP는 56억 달러이고, 뒤를 이은 캄보디아의 명목 GDP 역시 104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ASEAN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인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는 가장 작은 경제규모인 라오스보다 100배 내외 클 정도로 이들 국가들은 경제규모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표 7> 아세안 주요 은행의 해외 진출 현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룬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글로벌 은행	HSBC	●	●	●	●	●	●				●
	Standard Chartered	●	●	●	●	●	●	Rep	Rep	Rep	●
	Citibank	●	●	●	●	●	●				●
인도네시아	Mandiri	●			●						
	BCA	●									
	BNI	●			●						
말레이시아	Maybank	●	●	●	●		●	●		Rep	●
	Public Bank		●					●	●	Rep	
	CIMB	●	●		●	●	IB			Rep	
필리핀	Metrobank			●	Rep						
	BDO			●							
	BPI			●							
싱가포르	DBS	●	●	Rep	●	Rep				Rep	Rep
	UOB	●	●	●	●	●	●			Rep	●
	OCBC	JV	Off Shore		●	●	●			Rep	●
태국	SCB				●	●		●	●		JV
	Bangkok Bank	●	●	●	●	●			●	Rep	●
	B. Ayudhya					●		●			

주: ●는 지점의 현지법인의 설치 여부를 의미하고, Rep는 출장소를 의미하며, off shore는 역외지점을 의미한다. IB는 투자은행형태로 진출한 것을 의미하고, JB는 조인트 벤처은행을 의미한다.

출처: 각 은행의 웹사이트

이들 국가의 이러한 특징은 또한 산업 및 고용 구조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8>과 같이 선진화된 싱가포르의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반면, 브루나이는 석유산업 중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구조를 갖는다.<sup>20)</sup> 한편, 이들 국가들 간 산업구조의 차이점은 제조업 내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전기와 기계와 같은 자본 및 기술 집약적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섬유와 의류산업 같은 노동 집약적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 9>과 같이 아세안의 고용 구조 역시 산업 구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sup>21)</sup>

이러한 역내 국가의 경제 구조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금융시장 통합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나타난다. 즉, 아세안의 현황을 유럽연합이 금융시장 통합을 이룬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을 비교할 때,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고, 그 격차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2)</sup>

현재 아세안 정상들이 이미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였고, 각국 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부문별 구체적

20)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농업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5%, 32.1%, 43.5%에 이르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4%, 27.8% 및 19.4%에 그치고 있다.

21) 예를 들어, 200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농업분야에 대한 고용 비중은 각각 59.1%와 51.9%를 차지하는 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비중은 각각 단지 0.2%와 13.5%에 그쳤다. 또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용 비중은 2009년에 각각 84.0%와 69.3%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22) 덴델은 경제구조와 1인당 소득의 유사성 등을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볼 때, 아세안지역에서 통화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고, 그 전단계인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인 통합계획을 세울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아세안의 저개발 국가들은 금융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낮는데 과연 이러한 국가들에게 전반적인 금융시장 통합안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sup>23)</sup> 특히 금융산업에 관련된 각종 인프라시설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계획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시장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세안 내 저소득 국가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인프라시설이나 경제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과연 단기간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려면, 아세안 내의 고소득 국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다른 저소득 국가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아세안 선진국이라도 해도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소득이 일만 달러 이하의 개발도상국으로 모두 자국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주변 저소득 국가들을 도와줄 여력이 있는 가 혹은 도와줄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하려는 경제구조가 유사할 경우, 금융시장 통합의 이득이 상호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국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이렇게 각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다를 경우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23) 보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에 적합하게 설정된 개방안과 개방 전략을 과연 캄보디아가 채택하여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2) 실물 및 금융경제의 낮은 상호 연계성

아세안국가들은 1967년 정치 안보적인 공동체로 결성된 이후 최근까지 44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경제 및 사회적인 유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그림 5>와 같이 아세안국가들은 이미 1993년부터 일정 수준의 FTA을 시작하여 2003년부터 FTA를 체결하였지만 실제로 역내 무역비중은 2010년말 현재 전체 무역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통화통합을 이룩하기 이전인 1999년 이미 40% 수준을 달성하고 2009년에는 50% 수준에 이른 것에 비추어볼 때, 이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sup>24)</sup>

<표 8> 아세안의 산업 구조

	2000			2005			2008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브루나이	1.0	63.7	35.3	0.9	71.6	27.5	0.7	71.0	28.3
캄보디아	37.9	23.0	39.1	32.4	26.4	41.2	32.5	22.4	45.1
인도네시아	15.6	45.9	38.5	13.1	46.5	40.3	14.4	48.1	37.5
라오스	48.5	19.1	32.4	36.7	23.5	39.8	32.1	27.8	40.1
말레이시아	8.3	46.8	44.9	8.2	48.7	43.1	10.1	47.6	42.3
미얀마	57.2	9.7	33.1	46.7	17.5	35.8	43.5	19.4	37.1
필리핀	15.8	32.3	52.0	14.3	31.9	53.8	14.9	31.6	53.5
싱가포르	0.1	33.6	66.3	0.1	31.0	69.0	0.1	26.0	74.0
태국	9.0	42.0	49.0	10.3	44.0	45.8	11.6	45.1	43.3
베트남	24.5	36.7	38.7	21.0	41.0	38.0	22.1	39.7	38.2
아세안	21.8	35.3	42.9	18.4	38.2	43.4	18.2	37.9	43.9

출처: ADB. 2010. *Key Indicators 2010*. Manila  
 —. 2010.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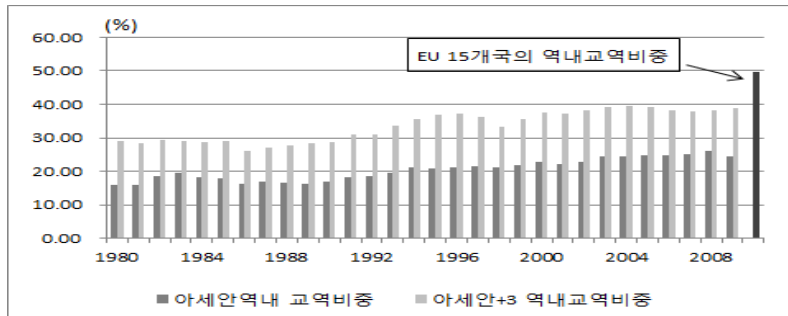
24) 먼델은 통화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해당 국가들끼리 상호 무역이나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기초할 때 통화통합의 전단계인 금융시장 통합을 위해서도 무역의 연계성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표 9> 아세안의 산업별 취업비중

	2000			2005			2009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캄보디아	73.7	7.0	19.3	60.3	9.7	30.0	59.1	8.7	32.2
인도네시아	45.3	13.5	41.2	44.0	13.7	42.3	41.2	13.2	45.7
말레이시아	16.7	23.8	59.5	14.6	20.2	65.2	13.5	17.2	69.3
필리핀	37.1	10.4	52.5	36.0	9.9	54.1	32.3	8.7	59.0
싱가포르	0.1	19.5	80.3	0.1	16.7	83.1	0.2	15.8	84.0
태국	44.2	15.0	40.8	38.6	16.0	45.4	39.0	14.4	46.6
베트남	64.4	10.1	25.5	57.1	18.2	24.7	51.9	21.5	26.5

출처: ADB. 2010. *Key Indicators 2010*. Manila  
 . 2010.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

<그림 5>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중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Database, IMF Website

한편, 2003년 아세안이 FTA 협정을 완성된 것은 추가적인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의 촉진제가 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FTA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궁극적으로 2003년에 완결됨에 따라 아세안 내에서 상품시장 이외의 서비스시장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sup>25)</sup> 그러나 아직까지

아세안 전반적인 금융시장 개방 정도는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아세안내 은행들이 역내 다른 국가에 진입한 경우가 <표 7>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 모든 국가에서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이 매우 제한을 받으며, 현지법인 형태의 설립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2010년 동안 외국은행의 역내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 설립이 허가된 경우는 거의 없다.<sup>26)</sup>

### (3) 아세안 협력체제의 문제점

아세안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불간섭주의’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 즉 아세안은 원칙적으로 정치 및 안보 공동체로 시작되었고, 불간섭주의 원칙 하에서 각국은 각국이 동의한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권고

- 
- 25) 최초 금융시장 개방 및 통합 협의는 서비스시장 통합 협의 및 방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포함되었으나, 이후 금융시장의 전문성 및 독특성을 반영하여 아세안 금융 감독당국인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협의체가 금융서비스 개방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최초 아세안에서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안 협의가 시작되어, 이후 합의된 사항은 1997년 발표된 제1차 서비스시장 패키지에 포함되었으나 이후의 모든 금융서비스 개방 및 통합에 관련된 각종 조치 및 협의는 아세안 금융 감독당국인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협의체로 이전되었다. 2002년 발표된 금융시장 서비스 시장 개방 2차 패키지는 최초로 금융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작성되었다 (1997 PROTOCOL TO IMPLEMENT THE INITIAL PACKAGE OF COMMITMENTS UNDER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The 2nd ASEAN Informal Summit in Kuala Lumpur, Malaysia on 15 December 1997, 2002 PROTOCOL TO IMPLEMENT THE SECOND PACKAGE OF COMMITMENTS ON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6th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Yangon, Myanmar on 6 April 2002).
- 26) 아세안각국의 금융정책 당국은 외국은행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경우, 자국은행의 업무영역이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 외국은행의 신규 진입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가장 작은 곳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인데 이곳에서도 외국은행의 국내 진입은 모두 현지법인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나마 이들 국가에서도 2008년 이후는 신규 허가된 은행이 거의 없다. 한편 이는 은행서비스의 초과공급에 따라 은행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감독기관의 의지와도 관련된다. 외국은행이 진입할 경우 국내 은행서비스의 초과공급으로 은행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이 지켜야할 공통 사항이 수립될 경우에도, 'ASEAN-X' 원칙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상호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서로 다르게 된다. 즉 '동일 목적 및 다른 시점 및 진행속도 (Same end goal but different date and speed)' 원칙에 따라 각국은 다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을 어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내 금융시장이 통합될 경우, 각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고, 각국의 금융기관은 타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아세안 내 타국의 금융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는 동시에, 타국의 금융기관의 자국의 금융시장 진출로 자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금융 감독기관들은 자국의 시장을 잃는 것보다는 타국에 진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국의 시장개방을 미루는 동시에 타국의 시장 개방을 먼저 요구하게 된다.

한편 이렇게 결정된 통합안의 실행에 있어서도 아세안의 각국들은 다른 국가들에게 이를 강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구조상 타 국가가 이를 준수하는가를 검사할 권한을 누구도 갖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사법권이나 클레임 권한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아세안 금융서비스 통합을 추진하는 아세안 금융협력 워킹그룹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아세안에서 금융서비스 및 자본자유화 워킹그룹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협력이기 때문이다. 2002년 처음 발표된 2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협의안부터 2011년 4월의 5차 협의안까지 이들 협의안은 대체로 각 워킹그룹에서 각국의 금융서비스 대표들이 자국이 개방할 서비스 내용을 제시하고, 각국이 추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때 협의안의 결정은 불간섭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이 굳이

자국 산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굳이 시장을 개방할 이유가 많지 않다. 또한 이 협의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각 감독기관의 감독권을 줄이는 자유화계획안을 제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들 개방안은 장기적인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 마스터플랜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현실에 맞게 작성된 양허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상당부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양허안에서 결정될 경우라도 각국의 현실에서 이것이 적용되는가를 조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 (4) 아세안내 금융 감독기관의 차이

아세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들은 서로 업무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표 10>과 같이 아세안 각국에서 각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감독기관들이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중앙은행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보이지 않으나, 보험이나 비은행기관 및 증권은 증권 감독기관이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sup>27)</sup>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나, 태국과 필리핀은 보험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라오스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재무부가 이를 담당한다.

이렇게 각국의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세안 각국의 금융시장과 제도가 발전단계 면이나 발전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독립한 필리핀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27) 부루나이의 중앙은행이 2011년 1월 발족함에 따라 2011년 1월 현재 아세안 모든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독립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서로 다른 금융시스템을 갖게 되고, 관련 감독시스템을 갖게 된다. 또한 공산주의시스템을 채택한 후, 최근 들어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을 선택한 국가 역시 이와는 다른 제도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금융시장 통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아세안 내에서 금융시장 통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감독기관이 관련 법적 제도적인 사항을 토의하고, 조정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아세안 내에서 감독기관의 협의체 구성에도 어려움을 제기한다.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들 각국의 금융기관들을 상호간에 감시하면서 자료를 공유할 협의체가 필요한데, 각국의 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각국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대표자가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들 기관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위원회는 민간의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재무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성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된다.

#### (5)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지기 사태와 이로 인한 리만브러더스 사의 파산신청, 2010년 그리스의 외환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아세안 각국들은 역내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 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금융시장 통합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첫째, 각국의 정부는 역내 금융시장 통합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 통합시 각국의 정부는 조정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글

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이들 국가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각국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정치적으로 각국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다. 앞의 <표 5>와 같이 2008년과 2009년중 아세안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크게 하락한 경우, 이들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문제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통합문제를 소월이 하게 된다.

둘째, 아세안 각국들의 금융시장 위험 부담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각국들이 새롭게 접하는 금융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각국들은 새로운 위험을 직면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경우, 금융 감독당국이나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쉽게 극복하거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매우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위험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하여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에 포함되는 그리스의 재정파탄으로 시작된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유럽연합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 통합시 고려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점을 직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역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아세안 국가들은 자본자유화 및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어막(Safeguard)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통합 우선 보다는 이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이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 (6) 통합추진을 위한 역내 준비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시장 통합 추진을 위한 역내 준비사항으로 현재 아세안국가들의 금융기반 제도 구축 및 각국 시장 및 제도에 관한 연구현황과 인력확보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각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금융시장 및 제도인 중앙은행의 총액결제시스템과 예금보험제도 및 증권시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sup>28)</sup>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면서 금융산업 역시 매우 뒤쳐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과 같이 금융자산이 선진국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일부에 불과하고, 일부 저소득 국가는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표 11>과 같이 아세안 국가들의 기본적인 금융제도를 살펴볼 때, 일부 국가들이 중앙은행 전자거액결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예금보험제도 같은 기본적인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거나 매우 최근에 제도를 도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럽의 금융시장 통합 당시와 비교할 때 더욱 커진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19세기 이전부터 축적된 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인 부문 이외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 확보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은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산업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시장 통합을 주장하고 이에

28) 각국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금융인프라 제도로는 중앙은행 총액결제시스템, 예금보험제도,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 기관 등 여러 가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아세안내의 이들 기관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앙은행 총액결제시스템과 예금보험제도 등을 살펴본다.

따른 경제성장 및 효율성 개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주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인력은 역내에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만약 이러한 인력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일부 국가에 한정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금융시장 통합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정한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일부 아세안 저개발 국가들은 자국의 금융시장 발전 계획 자체를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가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sup>29)</sup>

또한 개별 금융기관에서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이에 관련한 업무를 실행할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서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공통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감독기관인 중앙은행에서도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서 발표되는 상당수 보고서는 각국의 지역 언어로 발표되고, 영어로 발표되는 보고서나 보도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발표된다.

---

29) 예를 들어,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금융시장 발전 전략은 아시아개발은행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베트남의 개발계획은 세계은행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표 10> 아세안의 금융 감독기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b>은행</b>										
상업은행	Autoriti Monetari Brunei Darussalam	National Bank of Cambodia	Bank of Indonesia	Bank of Lao PDR	Bank Negara	Central Bank of Myanmar	Banko Sentatal Ng Philipin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Bank of Thailand	State Bank of Viet Nam
기타은행	Autoriti Monetari Brunei Darussalam	National Bank of Cambodia	Bank of Indonesia	Bank of Lao PDR	Bank Negara	Central Bank of Myanmar	Banko Sentatal Ng Philipin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Bank of Thailand/Ministry of Finance	State Bank of Viet Nam
<b>비은행 금융기관</b>										
보험	Autoriti Monetari Brunei Darussalam	Ministry of Finance	BAPEPA M-LK	Ministry of Finance	Bank Negara	Ministry of Finance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Ministry of Finance
기타금융기관	Autoriti Monetari Brunei Darussalam	Ministry of Finance	BAPEPA M-LK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b>자본시장 관련기관</b>										
증권사	없음	없음	BAPEPA M-LK/Ministry of Finance	없음	Securities Commission	없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Ministry of Financ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Ministry of Finance	State Securities Commission/Ministry of Finance
자영업관련	없음	없음	BAPEPA M-LK/Ministry of Finance	없음	Securities Commission	없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Ministry of Financ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Ministry of Finance	State Securities Commission/Ministry of Finance

주: at the end of January, 2011

출처: 아세안 각국의 중앙은행,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lt;표 11&gt;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금융기반 시스템

	중앙은행총액결제시스템	예금보험제도	증권시장
브루나이	없음	있음(2011)	없음
캄보디아	없음	없음	없음
인도네시아	있음(2000)	있음(2004)	있음
라오스	없음	있음(2011)	있음(2011)
말레이시아	있음(1999)	있음(2005)	있음
미얀마	없음	없음	없음
필리핀	있음(2002)	있음(1963)	있음
싱가포르	있음(1998)	있음(2006)	있음
태국	있음(1995)	있음(2008)	있음
베트남	있음(2002)	있음(2000)	있음

주: ( )내는 도입 및 설치 연도

마지막으로 아세안 각국 금융 및 경제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시장 통합은 많은 학자들과 정부가 주도하는 기초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로 아세안 내에서 이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을 단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각종 제도나 법률 관련 연구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들 국가들에서 이러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어 있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아세안 내에서 은행에 대한 정의와 구분이 서로 다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 현재 아세안 각국이 사용하는 상업은행의 정의를 각국의 은행법을 통하여 살펴보면 상당부분 차이점이 제기되고,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서가 없다.<sup>30)</sup> 즉, 금융시장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기

30) 예를 들어 필리핀은 일반은행을 유니버살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지역은행 등으

관이 상업은행인데 현재까지 이러한 아세안 각국의 은행의 정의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의 각종 경제관련 통계를 살펴볼 때에도 거시 경제 및 무역관련 자료들은 아세안 사무국 웹사이트를 통하여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으나, 개별 산업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금융 산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비교 가능한 통계 역시 제공되지 않고, 이를 통한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아세안은 금융시장 통합에 성공할 것인가?

본 연구는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에 대한 3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각각 가설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세안의 금융 제도와 현황 지표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되었다.

첫째, 아세안은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다. 아세안은 역내 투자증가와 금융산업 발전 및 역내 저축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커다란 이득을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얻게 된다. 따라서 가설 2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세안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다.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은 예금보험제도가 중앙 은행 전자결제시스템 등 기본적인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아세안 전체 국가들의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 연구도 부족하며 관련

---

로 구분하나, 말레이시아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지역은행, 개발기관 등으로 구분하며, 베트남은 정부소유상업은행, 민간소유상업은행, 조인트스탁은행, 외국은행, 조인트벤처은행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의 구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나 역할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인력의 확보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에서 표준화된 제도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합의에 따라 각국이 제도 및 법률을 모두 개정하고 조정할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설 1이 성립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아세안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것은 가설 3으로 아세안이 금융시장 통합을 이룩하되 현재 예정된 2015년보다는 늦게 통합하는 것이다. 아세안이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장기적인 이득이 너무도 크고, 실제로 아세안 정상들이 이미 경제공동체를 선언한 마당에 이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세안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장기적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하면서 현재 예정된 기간보다 통합을 늦추는 것이 될 것이다. 먼저, 2015년까지 각국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통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이룩할 경우, 각국 정상이 선언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준비 업무는 마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적인 금융시장의 통합은 각국 금융기관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규제와 환경에 적응하여 역내 국가로 진출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므로, 제도구축이 이루어지고, 다시 수년이 지난 후에나 그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전반적인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를 2015년까지 수립한 후, 점차 실제 금융시장 통합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으로서 일부 금융기반 시스템이나 제도 연구가 이루어진 국가들이 먼저 시장 통합을 이루고, 나머지 국가들이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연구를 시도한 후,



시장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순리적인 통합방안이 될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국가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기본 금융기관 및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예금보험제도, 신용보증기구, 신용평가기관 등 금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자본시장이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그리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각국의 금융 인프라 구축 및 금융제도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후에 시장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아세안 정상들이 선언한 경제공동체 내에서 일부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시장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고, 준비사항이 부족한 일부 역내 국가들에게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게 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시 역내 국가들이 얻게 되는 부담과 비용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먼저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시장 통합의 의미와 최근 통합 현황을 살펴보고,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 이 가설의 미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방법으로는 임계치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계량적인 분석보다는 현실 제도와 기초 통계치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이때 주요 분석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제시되었다.

첫째, 아세안은 최근 수년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을 진행하였다. 이는 특히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이 발표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정상들이 선언한 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따르면 2015년까지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세안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금융서비스 개선이나 투자확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이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에 신규서비스가 제공되고, 시장 확대를 통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아세안 내 상대적으로 고소득국가에서 상당한 이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은 단기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금융시장 통합을 이루이기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세안 각국의 금융구조가 너무도 다르고, 일부 국가들은 기본 금융 인프라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 금융시장이나 법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이들 국가들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세안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할 것이나 아세안 역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시장 통합을 2015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세안 정상들이 이미 2015년에 아세안경제공동체를 달성한다는 것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제도를 2015년까지 구축하고, 실제 역내 금융기관의 활발한 진출은 이후에나 일어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2015년 나타나게 될 통합된 아세안 금융시장은 일부 국

가가 참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융시장 통합에 참여하려면 참여국이 금융인프라를 상당 수준 구축하고 있어야 하나, 일부 국가들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까지 이루어질 아세안의 통합 금융시장은 대부분의 금융 인프라를 보유하고, 어느 정도 금융제도가 발전된 일부 국가들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 통합된 금융시장에 차차 가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역시 아세안 정상들의 선언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아세안의 금융 및 경제 및 제도 현황에 비추어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현재 아세안 10개국의 금융제도 및 시장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연구서나 통계가 없고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방법이나 결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연구의 주제에 관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아세안 경제공동체, 아세안 FTA, 은행

### 〈참고문헌〉

배금찬. “ASEAN 공동체 추진 과제와 전망: ASEAN 헌장 채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 외교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아세안 각국의 중앙은행 웹사이트.

- 이충열. 2003. 『동아시아 금융구조조정과 성과』. 아연출판부.
- \_\_\_\_\_. 2010.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동아시아 전자금융시장 진출 전략』. KDI.
- ADB. 2010. *Key Indicators 2010*. Manila: ADB.
- \_\_\_\_\_. 2010.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http://aric.adb.org/macro_indicators.php).
- Aghion, P. and A. Banerjee. 2005. *Volatility and Growth: Clarendon Lectures in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lfaro, L., A. Chanda, S. Kalemli-Ozcan and S. Sayek. 2004. "FDI and Economic Growth: the Role of Local Financial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4(1): 89-112.
- ASEAN Secretariat. 2008. *ASEAN Economic Blueprint*.
- \_\_\_\_\_. 2010. *ASEAN Insurance database*.
- \_\_\_\_\_ official website. <http://www.aseansec.org/>
- \_\_\_\_\_ Summit. 1995.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 Bangkok, Thailand. Dec 15.
- \_\_\_\_\_. 2007. "Cebu Declaration on the Accel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 Community by 2015." Cebu, Philippines. Jan 13.
- Bank of Thailand. 2006. *Thailand's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Handbook*.
- Bekaert, G., C. R. Harvey and C. Lundblad. 2005. "Does Financial Liberalization Spur Grow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7(1): 3-55.
- \_\_\_\_\_. 2009. "Financial Openness and Productivity." *NBER Working Paper* 14843.

- Bencivenga, V. and B. Smith. 1991.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Endogenous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 195-209.
- Brand Finance. [http://www.brandirectory.com/league\\_tables](http://www.brandirectory.com/league_tables).
- Carkovic, M. and R. Levine. 2005.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elerate Economic Growth?" Moran, T. H., E. M. Graham and M. Blomstr eds. *Does Foreign Investment Promote Development?*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Chow, Hwee Kwan, Peter N. Kriz, Roberto S. Mariano and Augustine H. *Trade*. 2005. *Investment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ASEAN+3 Secretariat.
- European Union. 1989. *Second Council Directive 89/646/EEC*. Dec.
- Fujiki Hiroshi and Akiko Terada-Hagiwara. 2007.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Working Paper* 2007-30.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 Goldsmith, R. 1969. *Financ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reenwood, J. and B. Jovanovic. 1990. "Financial Development,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1076-1107.
- Hammel, E. 2006. "Stock Market Liberalization and Industry Growth." manuscript. Harvard Business School.
- Hermes, N. and R. Lensink. 2003. "Foreign Direct Investment,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0(1): 142-163.
- IMF. 2010. *Portfolio Investment: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 Survey(CPIS)*.
- \_\_\_\_\_. *Direction of Trade Database*. IMF Website.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IMF Website.
- Jang, Hong Bum. 2011. "Financi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Assessment of Recent Developments and Their Implications." *Discussion Paper 2011-E-5*. Institute for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Bank of Japan.
- Kim, Soyong and Jong-Wha Lee. 2008 "Real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17.
- Kraay, A. 1998. "In Search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unpublished. Washington: World Bank.
- Lee, Hyun-Hoon, Hyeon-seung Huh, and Donghyun Park. 2011.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 Empirical Investigation."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259. ADB.
- London Economics, PWC and Oxford Economic Forecasting. 2002. *Quantification of the Macro-Economic Impact of Integration of EU Financial Markets, Final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Directorate-General for the Internal Market*. European Union.
- McKinnon, R. 1973.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e.
- Mukerji, P. 2009. "Ready for Capital Account Convertibility." Forthcoming in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 Pasadilla, Gloria O. 2008.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in East

- Asia: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Working Paper Series* 53. Asia-Pacific Research and Training Network on Trade.
- Prasad, E. S., R. G. Rajan and A. Subramanian. 2007.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8(1): 153-230.
- Rose, M. Ayhan, Eswar S. Prasad and Ashley D. Taylor. 2009. “Threshold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IZA Discussion Papers* 4133.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 Shaw, E. S. 1973.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 Yung Chul and Charles Wyplosz. 2008. “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The Relevance of European Experience.” *Economic Papers* 329. Sep. European Union.
- World Bank. 2010. *Financial Access 2010: The State of Financial Inclusion Through the Crisis*. Washington.

(2011. 06. 05. 투고; 2011. 06. 29 심사; 2011. 09. 23 게재확정)

<부록>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

1. 아세안 금융 감독기관들의 워킹그룹

(1) 금융서비스 자유화워킹그룹

아세안 금융서비스자유화 워킹그룹(Financial Service Liberalization Working Group)은 아세안의 금융서비스 자유화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을 도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금융서비스자유화 워킹그룹은 아세안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인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연 2-3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금융개방 및 자유화정책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일정을 협의한다.<sup>31)</sup>

아세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구와 감독형태 및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 각국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와 형태, 규모, 역사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신들의 실정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성숙된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가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 자본시장 등을 모두 감독하고 있지만, 이웃인 말레이시아는 은행과 보험은 중앙은행(Bank Negara)이 감독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감독하고, 자본시장은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가 감독한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은행은 중앙은행(Bank Sentatal Ng Philipinas)이 감독하나 증권과 보험은 각각 증권위원회(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보험위원회(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가 감독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재무부가 감독한다. 한

31) 아세안 금융서비스자유화워킹그룹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이 주관 기관 역할을 하며,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이 부주관기관이다.



편 아세안 국가 중 저개발국 중의 하나인 라오스는 증권시장이 없는 가운데 은행은 중앙은행이 감독하고, 나머지 기관은 재무부가 감독한다.<sup>32)</sup>

이렇게 아세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세안 금융서비스자유화 워킹그룹의 구성원 역시 다소 다양하다. 은행과 보험 및 기타 비은행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이들 각 감독기관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 대표로 참석하나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모두 참여한다.

최초 아세안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및 개방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보다는 전체 서비스시장 통합 및 개방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아세안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회는 아세안 국가들이 <표 12>의 아세안 서비스 및 금융시장 개방 협의의 주요 일지에 밝혀진 것과 같이 1995년 12월 15일 태국 방콕의 제5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정상들이 아세안 서비스시장 개방협의 프레임워크(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에 동의하고 서비스 시장을 무역과 동일하게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부터 아세안 서비스시장개방을 위한 1차 협의를 시작하여, 1997년 12월 15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1차 서비스시장 패키지(first package)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sup>33)</sup> 이어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2차 회의를 시작하였고, 1998

32) 한편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시장 및 기관의 발전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감독방법 역시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BASEL II에 입각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고 BASEL III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소득국가인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BASEL II에 입각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고 있지 못하다.

33) 1997 PROTOCOL TO IMPLEMENT THE INITIAL PACKAGE OF COMMITMENTS UNDER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The 2nd ASEAN Informal Summit in Kuala Lumpur, Malaysia on 15 December 1997

년 1998년 12월 16일, 2차 서비스시장 개방 패키지(second package)를 도출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8차 서비스시장 개방패키지를 도출한 상태이다.

<표 12> 아세안 서비스 및 금융시장 개방 협의 주요 일지

주요 사항	설명
기본협약안 도출	아세안 서비스시장 개방협의 프레임워크 도출(1995년 12월 제5차 아세안정상회의)
1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1997년 12월 15일 경제장관회의, 최초 개방협약안 도출,
2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1998년 12월 15일 경제장관회의, 베트남, 하노이
3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01년 12월 31일 경제장관회의
2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02년 4월 6일 재무장관회의, 미얀마, 양곤
4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04년 9월 3일 경제장관회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05년 4월 6일 재무장관회의, 라오스, 비엔티엔
5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06년 12월 8일 경제장관회의, 필리핀, 세부
6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07년 11월 19일 경제장관회의, 싱가포르
4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08년 4월 4일 재무장관회의, 베트남, 다낭
7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09년 2월 26일 경제장관회의, 태국 차앙
8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10년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 싱가포르
5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협약안 도출	2010년 4월 8일 재무장관회의, 인도네시아 발리

출처: 아세안 웹사이트, <http://www.aseansec.org/>

이때 금융서비스시장 협의는 최초 1차 협의에 포함되었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각종 특수한 성격과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아세안 각국의 크게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아세안 금융 감독당국들은 아세안 재무장관회의를 통하여 금융시장 통합 및 개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up>34)</sup>

이에 따라 아세안 금융 감독기관들은 금융서비스 개방화 및 자유화 워킹그룹을 결성하고, 1999년~2001년 말까지 협의를 시작하여 2002년 4월 미얀마 양군의 제6차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제2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협의를 도출하였다.<sup>35)</sup> 협의안이 발표된 4월 이후 각국은 협의안을 비준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한편, 자유화워킹그룹은 2002년~2003년 말까지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협의하기 시작하여 2005년 4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9차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제3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협의안을 발표하였으며, 2008년 4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제4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협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1년 4월 제15차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5차 협의안을 제시하였다.

## (2) 자본시장 발전 워킹그룹

아세안은 2003년 제7차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통과한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로드맵(Roadmap for Integration of ASEAN in Finance, RIA-Fin)에 기초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발전 워킹그룹을 결성하였다. 이때 자본시장 발전 워킹 그룹은 아세안 각국의 중앙은행과 재무부 및 자본시장 감독기관 등으로

34) 아세안재무장관회의는 1997년 12월 1일 태국 방콕에서 처음 개최된 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가장 최근인 2011년 4월 제15차 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35) 2002 PROTOCOL TO IMPLEMENT THE SECOND PACKAGE OF COMMITMENTS ON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6th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Yangon, Myanmar on 6 April 2002

구성된다.

이때 자본시장 발전 워킹 그룹은 2004년 결성한 이후 매년 약 2-3 회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국 자본시장 발전 및 개방 계획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다. 자본시장 발전 워킹 그룹의 연구 및 각국 개방 계획은 2007년의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07)에 포함되었고, 이후 각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을 점검하고 관련 보고서를 아세안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자본시장 발전 지수를 개발하여 각국의 자본시장 발전 척도를 보다 객관화하여 자본시장 통합 및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sup>36)</sup>

### (3) 자본계정 자유화워킹그룹<sup>37)</sup>

아세안 자본계정자유화 워킹 그룹은 역시 다른 워킹그룹과 같이 2004년부터 결성되어 아세안의 자본계정 자유화 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아세안 재무부와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연 2회 혹은 3회 개최되었고, 이들의 연구 및 회의 결과는 결국 2007년 발표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의 자본자유화 부문에 포함되었다. 2008년 이후 자본계정 자유화워킹그룹은 2007년 발표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년도 별로 수립된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본계정 자유화워킹그룹은 아세안 사무국이 아세안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ERIA)를 통하여 개발한 자본자유화 점검표(scorecard)를 기반으로 각국의 자유화 진행사항을 점검하려고 있다.<sup>38)</sup> 또한 자본시장 자유화포럼에서 제시한 ‘실

36) 자본시장 발전 지수는 2010년 4월 워킹그룹회의에서 제안되어 2011년중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7) 자본자유화 워킹 그룹은 필리핀 중앙은행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행계획'과 일치된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 (4) 지급결제시스템 워킹그룹

아세안 금융감독기관들은 금융시장 통합에서 지급결제시스템 통합 및 효율성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아세안은 2010년 6월 지급결제시스템 워킹그룹을 결성하고,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 및 통합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즉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아세안 역내에서 각종 자금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성이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금융통합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안 각국이 국제거래에서는 자국통화가 아닌 미달러화로 거래하고, 전반적인 지급결제인프라 부족으로 환위험이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중앙은행은 워킹그룹을 형성하고, 2011년 4월 중앙은행장회에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39)</sup> 이에 따르면 아직까지 아세안 각국들은 각국의 상업은행들의 코레스 뱅크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금을 결제하되, 외환동시결제(Continuous Linked Settlement)에 참여하거나 직접 각국 중앙은행을 통한 거래 및 유럽의 TARGET 혹은 TARGET2 등과 같은 역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 않다.

38) 2010년말 자본계정자유화 점검표는 시험개발된 것이 사용되었고, 2011년중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9) 아세안 지급결제시스템워킹 그룹의 주관기관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고, 부주관기관은 태국중앙은행이다.

## 2. 아세안 자본시장 포럼

아세안 자본시장 포럼(The ASEAN Capital Markets Forum)은 2004년 아세안 재무장관 회의 결과에 따라 구축된 포럼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관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아세안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이슈를 담당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었다.

아세안 자본시장 포럼은 2008년 4월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실행 방안 (Implementation Pla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apital Marke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AEC Blueprint 2015, Implementation Plan 2015” 작성을 위한 연구를 제안하였고, 이듬해인 2009년 4월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세안 자본시장 포럼에서 제시한 실행방안은 아세안의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아세안 각국의 자본시장 현황과 유럽 및 기타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자본시장 통합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이때 아시아 개발은행은 필요한 자금과 연구 시설을 제공하였다.

이 실행계획은 크게 아세안 각국의 자본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아세안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각종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향후 아세안 각국이 실제 자본시장 통합을 수행할 때 지켜야할 각종 원칙과 장애요인 및 제약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행계획은 아세안 각국의 자본시장 통합순서로 (1) 상호간의 규정 및 법규의 조화(harmonization)와 인정에서 출발하여 역내 다자간의 규정 및 법규 인정을 통한 통합으로 추진하며, (2) 도매거래 시장의 통합에서 시작하여 소매거래 시장의 통합을 추진하고, 2009년~2010년, 2011년~2012년, 2013년~2015년에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는 등 2015년 아세안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과제와 원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넓은 의미에서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 안에 따라 실제로 각국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가는 알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및 계획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또한 자본시장 부문의 활발한 진행이 은행부문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은 2006년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일관적인 계획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세안 내의 작성팀을 구축하고 작성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은 2015년까지 아세안이 이룩할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비전과 향후 발전 방향 및 주요 실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이때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핵심 요소는 크게 (1) 단일시장 확보, (2) 역내 경쟁력 강화, (3) 공정한 경제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 편입 등으로 구성된다.

아세안 단일시장 확보는 상품 및 서비스의 단일시장과 역내 투자 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숙련노동 이동 자유화 등으로 구성되고 이중 서비스시장의 단일시장 확립에서 금융서비스 시장의 통합이 포함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본자유화가 실시된다.<sup>40)</sup>

이때 보다 구체적인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으로 'ASEAN minus X' 방식이 채택되었고, 자유화 속도는 각국의 정책 목표와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 정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원칙을 주장하였다.

자본자유화는 각국의 증권 관련 규제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자본 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자본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국이 각자 자유화 안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즉 <표 13>과 같이 각국이 특정 금융서비스에 한해서는 2015년까지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표 13> 아세안 경제공동체내의 금융서비스 자유화 내용

	부 문	국 가
보험	Direct Life Insurance	Indonesia, Philippines
	Direct Non-life Insurance	Brunei, Cambo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Viet Nam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Brunei, Cambo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Viet Nam
	Insurance Intermediation	Cambodia, Malaysia, Indonesia, Philippines, Singapore, Viet Nam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Brunei, Cambo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Viet Nam
은행	Acceptance of Deposits and Other Repayable Funds from the Public	Cambodia, Laos and Viet Nam

40) 한편 역내경쟁력 강화는 경제공동체내의 공정경쟁 추진,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확보 및 사회 인프라개선 등을 전략과제를 포함하며, 공정한 경제발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및 국가간 소득격차 감소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경제로의 편입에서는 타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Lending of All Types	Cambodia, Laos and Vietnam
	Financial Leasing	Cambodia, Laos and Vietnam
	All Payment and Money Transmission Services	Cambodia, Laos and Vietnam
	Guarantee and Commitments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자본 시장	Trading for Own Account or for Account of Customers	Brunei,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Participation in Issues of All Kinds of Securities	Indonesia, Philippines (subject to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limitations)
	Asset Management	Indone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Settlement and Clearing Services for Financial Assets	Indone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기타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Financial Data Processing and Related Software by Suppliers of Other Financial Services	Philippines, Myanmar
	Advisory, Intermediation and Other Auxiliary Financial Services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 Nam

출처: ASEAN Secretariat, ASEAN Economic Blueprint, 2008

#### 4.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연구

아세안 중앙은행 협의회는 아세안 재무장관들과 협의 하에 금융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시장 개방 및 통합, 자본자유화 계획 수립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2011년 4월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재무장관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은행서비스시장 개방 및 통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아세안내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장 현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아세안 중앙은행 및 금융 감독기관들은 금융서비스 시장 및 통합을 약 3단계로 구분하고 2개의 트랙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즉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을 다음과 같이 진입(access), 대우(treatment), 환경(environment) 등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완전하게 통합되는 경우를 (1) 진입측면에서 아세안 역내 특정 국가에서 은행업 인허가를 받을 경우, 역내 어느 나라에도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2) 대우 측면에서는 개별 은행들은 역내 국가에서 모두 국내 은행과 같은 영업범위나 기타 영업 활동에서 같은 대우를 받게 되며, (3) 환경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들의 각종 규제나 관련 법규 등이 동일하거나 적어도 조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통합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진입 면에서 아세안은 먼저 제한된 수의 아세안자격은행(Qualified ASEAN Bank)을 선정하여 이들이 아세안 국가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즉 이 은행들은 현재 아세안에 본점을 둔 은행들로 이들은 아세안 어느 국가에나 현지법인 형태로 영업을 시작할 때, 해당국가의 금융 감독기관으로 부터 인허가가 면제된다. 이때 자격심사는 개별 은행의 건전성지표나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되 특정국가의 은행 비율이 일정수준이 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현지 법인 형태의 아세안자격은행을 아세안 내에 모든 은행에 확대하며, 셋째 단계에서는 아세안자격은행을 현지법인이 아니라 지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아세안 각국의 금융발전 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5개국과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 저소득 5개국(BCLMV) 등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별로 각기 도달하여야 할 단계를

시기별로 다르게 제시하였다.<sup>41)</sup> 즉 아세안5개국은 2015년까지 아세안자격은행(QAB)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확정하고, 2015년부터 아세안자격은행(QAB)를 통한 역내 타국 진출이 허용되고, 2020년에는 이들 국가의 모든 은행에 확대되면, 그 이후 지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세안 저소득 5개국(BCLMV)은 금융시장 발전 정도가 낮기 때문에 능력배양을 통하여 금융산업 및 기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경우, 비로소 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즉 이들 각국의 금융기관들의 처한 환경이나 발전 수준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은행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자본자유화 역시 금융시장 통합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순서를 제시하였다. 이때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이 상당 수준 개방된 수준을 정의한 후, 이 개방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각국이 준수하여야 할 단계를 제시하였다. 다만 싱가포르나 브루나이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상당 수준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방할 항목이 많지 않으나, 베트남, 라오스 등과 같은 국가들은 많은 개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러한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시장 감독의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도래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기관의 창립을 주장하였다. 즉 아세안내 금융기관들은 역내 여러 국가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감독기관들은 이

41) 비록 브루나이의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초과하여 소득이 높은 국가에 해당되나 실제로 브루나이의 경제규모가 작고, 금융산업 발전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저소득국가에 포함하였다.

들의 업무를 모두 다 총괄하여 살펴보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ASEAN Supervisory Board 나 ASEAN Colleague of Supervisor 등 아세안 감독기관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역내 금융시장과 기관을 감독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역내 예금자보험제도, 신용보증제도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화롭게 개선하여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 5. 아세안 각국의 금융시장 발전 전략

아세안 각국은 자체적으로 금융시장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특히 아세안 각국들은 개발도상국으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금융시장 통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금융시장 개방화 및 발전 전략은 각국마다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선도국가들은 자신들의 기존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정책을 갖고 이것과 아세안금융시장 통합과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1997년~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이거나 혹은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이다. 이들은 이후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sup>42)</sup>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42) 동남아국가들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한 구조조정정책은 이충열(2003)을 참조하시오.

하고 금융시장 자유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역시 국가중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융부문 관련 발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의 저소득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역시 금융산업의 발전계획과 자유화 및 개방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실제로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도움을 받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1990년대 개방이후 세계은행으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아서 금융개방화 및 자유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캄보디아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도움을 받아 금융시장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싱가포르를 이미 선진국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화된 금융시장 및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현재 갖고 있지 않으며, 미얀마는 정치적인 이유로 서구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별하게 금융시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형편이다. 한편 브루나이 역시 유전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소규모 인구 국가의 특징을 가지면서 금융산업의 육성을 크게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들 상당수 아세안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 개방화 및 자유화 계획들은 대부분 최근 추진되는 동남아 금융시장 통합 계획안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된 것이다. 2007년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청사진이 발표되었지만 실제로 금융부문에 대한 통합 계획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은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추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1년 중 아세안금융시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면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들은 기존의 발전계획과 통합계획을 조화롭게 추진하

여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된다.

<표 14> 아세안 각국의 주요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계획

국가	작성기관	발전 계획	작성 연도
말레이시아	Securities Commission	Capital Market Masterplan Malaysia.	2001
	Bank Negara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2001
필리핀	Securities Commission	Capital Market Development Plan	2004
	Securities Commission	The Non-Bank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Plan: 2004-2016	2004
	Philippines Government	The 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04-2010	2003
	Philippines Government	The 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1-2016	2010
인도네시아	Ministry of Finance	Capital Market and Non-Bank Financial Industry Master Plan 2010-2014	2009
	President Offic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10-2014	2009
태국	Securities Commission	Capital Market Development Master Program	2008
	Bank of Thailand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2006
	Bank of Thailand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Phase II	2009
베트남	Prime Minister Office	Master Plan of the State Administrative Reform for the period of 2001 - 2010.	2001
	State Bank of Vietnam	Action Plan on Promoting Administrative Reform	2008
	Prime Minister Office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2006-2010	2005
	Prime Minister Office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2011-2020	2010

국가	작성기관	발전 계획	작성 연도
	Prime Minister Office	Plan for Developing the Banking Industry to 2010 and Direction toward 2020	2007
라오스	Committee for Planning and Investment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01-2005)	2000
	Committee for Planning and Investment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06-2010)	2005
	Bank of Lao PDR	Financial Sector Strategy	2008
캄보디아	National Bank of Cambodia	Financial Sector Blueprint for 2001-2010	2000
	National Bank of Cambodia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Strategy for 2006-2015	2005

출처: 아세안 각국 중앙은행 웹사이트 및 재무부 웹사이트

<Abstract>

## ASEAN Financial Integration: Is it possible?

LEE Choong Lyol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of recent development of ASEAN financial integration and to evaluate it and predict its future aspect.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the historic aspect of ASEAN financial integration such as ASEAN financial service open agreement or ASEAN capital market forum report and currently agreed integration plan. In addition, we study the development stages of ASEAM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its economic size or income level. Finally, we look at the financial market and institutional aspect of ASEAN member countries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global financial market.

From these analyses, we find several important facts. First, it is true that ASEAN, in general, will enjoy the effect of expanding regional investmen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nancial service through the financial integration. We think that its long term benefit is too large for ASEAN member states to avoid. Second, as a result, it is certain that ASEAN will corporate further to make its financial market to be integrated in the future. Third, however, despite these benefits and continuing efforts, we expect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ASEAN to reach a stage of financial integration as suggested in the Blueprint of



ASEAN Economic Community by the year of 2015. The large difference among member states in term of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 will not allow for them to reach a single goal within a short time. Instead, we expect the following scenario for the integration process will hold. First, ASEAN will reach an agreement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by 2015 and afterwards, slowly the markets will begin to integrate. Second, at the earlier stage, not all but some countries will start the integration process. We expect that the financial market of ASEAN 5 will first be integrated and other 5 will join to it later.

**Key words:** ASEAN financial integration,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FTA, commercial bank.